

2025 대한민국 헌혈공모전(수기)

제목	당신의 15분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보지 않겠어요?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내가 처음 세상의 공기를 마신 건 생후 두 달 무렵이었다.

아직 이름도 없었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던 나는 그때 인생의 첫 시련을 마주했다. “담도폐쇄증” 지금도 낫선 그 병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무섭게 내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다.

피부는 점점 노랗게 물들었고 간 수치는 매일같이 위태롭게 오르내렸다.

병원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혈액검사를 하며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했고 내 조그만 팔에는 바늘이 꽂히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한다. 그때의 기억은 나에게 없지만 엄마와 아빠는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가가 젖는다. 그때는 피가 너무 부족해서 하루하루가 간당간당했다. 누군가의 피가 수혈될 때마다 겨우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.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.

“아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건 누군가의 헌혈 덕분이구나.”

직접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단지 따뜻한 마음 하나로 내게 생명을 건네준 거였다.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고 그 덕분에 나는 지금 이렇게 숨 쉬며 살아가고 있다.

하지만 참 모순된 일이다.

누군가에게서 생명을 선물처럼 받았지만 그 고마움을 같은 방식으로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. 과거 담도폐쇄증을 앓았던 나는 헌혈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다.

누군가의 손길로 살아난 내가 그 손길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넬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.

그래서 한동안 많이 고민했다. 내가 받은 생명을 어떻게든 돌려줄 방법은 없을까? 정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. 받았던 그 도움을 기억하고 고마움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시작했다.

“헌혈 홍보 캠페인”

사람들은 그 일을 팻말 하나 들고 서 있는 일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내게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. 내가 들고 있던 팻말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. “생명을 살리는 사람, 바로 우리” 나는 그 문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으로 되뇌었다.

혹시라도 이 문장을 보고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다.

헌혈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멈춰섰다. 바늘이 무서워서거나 헌혈 후 피로할까 봐 아니면 단순히 해보지 않았기에 사람들의 눈빛이나 짧은 발걸음에서 그런 두려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.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. 망설임 속에 사실은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그래서 무작정 다가가지 않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

을 건넸다. 헌혈은 단지 피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.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. 그 짧은 15분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.

헌혈 캠페인을 하는 어느 날 스무 살 조금 넘은 듯한 여성이 내 앞에 멈춰 섰다. 팻말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.

“저..처음이라 좀 무서워요 많이 아플까요?”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.

조금 따끔할 수는 있지만 그 따끔함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!

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헌혈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. 그리고 한 시간 쯤 지나 다시 나타난 그녀의 얼굴엔 아주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. “정말 별거 아니네요” 좋은 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

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울컥했는지 모른다. 그 순간 나는 다시 확신했다. 헌혈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적을 건네는 일이라는 것을.

나는 여전히 헌혈을 할 수 없다. 내 몸은 지금도 늘 조심해야 하고 평범한 일상조치가끔은 버겁게 느껴진다.

하지만 절망하지 않는다.

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전히 생명을 잇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.

내가 건넨 말 한마디, 내가 들고 선 팻말 하나, 내가 지은 미소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를 헌혈의 길로 이끌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.

그래서 오늘도 나는 전하고 싶다.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의 15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,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절망에 빠진 가정에 희망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을,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누군가의 세상은 분명히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이다.

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.

지금 이 순간에도 헌혈을 통해 생명을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.

그래서 나는 오늘도 묻는다.

“헌혈 해보시겠어요?”

그리고 언젠가 내 몸이 허락해주는 날이 온다면 나 역시 주저 없이 팔을 걷어붙일 것이다.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다.

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게 이어질 수 있다면 그 15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 믿으며 오늘도 마음속 깊이 기도한다. 그 순간이 내게도 오기를.

그때가 오면 나는 단순히 헌혈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.

그 순간을 위해 나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 마음을 전한다. 내가 받은 기적이 누군가에게 다시 이어져 또 다른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. 비록 작고 조용한 외침일지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. 작은 발걸음, 말 한마디, 선택이 때로는 누군가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안다.

그러니 오늘도 나는 묻는다.

당신의 15분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보지 않겠어요?



